

현장에서 다발하는 여름철 질병 예방관리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저온저습한 계절 특성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는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혹서기를 지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더위로 속수무책 피해를 겪은 농장들은 점점 가속화 되는 폭염으로 걱정이 커져가기만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시설과 사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8월은 중순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그 이후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8월 말이 되면 더위가 가고 가을을 맞게 되는 시기이다. 절기는 계절의 변화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한다. 8월 7일이 입추(立秋, 가을의 시작)이고, 23일이 처서(處暑,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커짐)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머지않아 더위가 마감되고 서늘한 가을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더위에 지친 계군을 잘 관리하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중점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또 환절기 및 혹한기에 대비한 질병관리로 뜻하지 않게 질병이 발생하여 생산성 저하를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근래 국내 양계질병의 발생양상은 연중 그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질병 다발시기에 그 질병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중 어느 때도 계군관리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겠으나 더위를 겪은 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다가올 환절기와 혹한기를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손 영 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여름철에도 이어지는 바이러스 질병 피해

ND, IB, LPAI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전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반화된 현상이다. 그것은 연중 계군에 대한 혈청모니터링 및 항원검사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질병이 피해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국내 양계질병 발생 경

향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최근 몇 농가에서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경험한 바 있다. 얼핏 더위 피해로만 오인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모니터링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생산성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언제나 질병발생 경향은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지난 몇 해 동안 LPAI의 경우는 여름철에 발생해도 질병에 의한 피해를 농장에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발생 양상을 보여 왔으므로 여름철 육성계군 혹은 접종대상 계군에 대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환절기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여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름철 LPAI의 발생으로 인한 계군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계군(특히, 육성계군)에 대해서 연중 백신프로그램에 근거한 LPAI 백신 접종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군에 대한 혈청모니터링을 통하여 LPAI의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계군들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예방백신의 접종을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분무백신 및 추가접종의 실시

혹서기에는 일반적으로 계군에 대한 분무백신

(혹은 음수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절기가 시작되는 문턱인 8월 중순 이후에는 혹한기에 대비한 ND, IB에 대한 분무백신을 실시해야 한다. 분무백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장들의 질병피해가 그렇지 않은 농장들의 경우보다 경미하다는 것은 이미 농장들의 수많은 질병 발생사례로 밝혀진 사실이다. 분무백신 접종간격은 1개월이 적당하며 가급적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분무 접종 간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무간격이 1개월이 채 되지 않게 실시되는 것은 무방하나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분무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에 부족하다.

ND의 추가접종은 계군의 혈청모니터링을 근거로 실시하되 젊은 계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며, ND의 피해가 다발하는 38주령에 도달하기 약 3~4주전에 계군에 대해서 실시한 혈청모니터링 결과를 참고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하여 ND 항체역가(HI)가 낮은 계군에 대해서는 필히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의 계군 역시

혈청모니터링을 통한 추가백신 여부를 양계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LPAI의 접종도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계군에 대해서는 필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종을 실시한 계군이라도 LPAI의 항체역가(HI)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백신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LPAI의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백신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LPAI 백신이 공급된 이후에 1차 백신을 실시한 계군이 항체역가의 저하로 인한 LPAI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8월 중에 가급적 계군의 LPAI 항체역가를 확인하여 항체역가 수준에 근거한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육성관리

8월중 입추되는 병아리의 입추 초기 관리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일단 계군의 온도와 습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여 계군의 성장 및 건강 관리에 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이다.

그러나 8월 입추계군의 생산 가담 시기는 호흡기성 질병이 다발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므로 육성과정의 기초백신의 실시 여부가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육성과정에서의 백신접종은 산란시기를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8월 중순까지는 육성 초기라 하더라도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8월 하순을 넘어서부터는 일교차가 발생하며 온도가 낮은 시간대에 상대습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습도 관리에 유념하여 계

군의 좋은 면역체계가 육성과정에 형성되도록 하여 이 시기에 각종 질병에 이환되더라도 잘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모로 갖추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들어 육성 관리상 습도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특히 호흡기질병) 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농장들이 육성 중의 습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차단방역관리

차단방역관리는 연중 그 중요성이 여름이나 겨울이 동등한 수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름철 차단방역관리에 농장들이 다소 소홀한 면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닭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주로 환절기 및 혹한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장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농장에 해당 병원체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혹서기에도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들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절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계군에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일으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농장 출입 소독관리, 계사 입구의 발판소독, 출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기록, 농장관리자들의 차단방역에 대한 의식 함양 등을 꾀하여 농장에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보일 때이다.

계사 입구에 발판소독조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군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한 생각이다. 단 한건이라도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농장운영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계**